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1. 1. 29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도로시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김정한, 주무관 전병철 • ☎ (044) 201-3922, 3925
보 도 일 시		2021년 2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

-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('21~'23) 기본계획 수립-

- 약 360억 원 투입하여 과속단속카메라 · 안전표지 · 노면표시 등 설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「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('21~'23)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,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.

○ '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'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,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노면표시, 미끄럼방지포장,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.

\*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

○ 지난 '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,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.6%, 사상자 수\*는 34.4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사상자수 감소효과 : 사망자수 △64.2%, 부상자수 △33.4%

○ 이에 따라,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「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('19~'20)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152곳을 개선하였으며,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('21~'23)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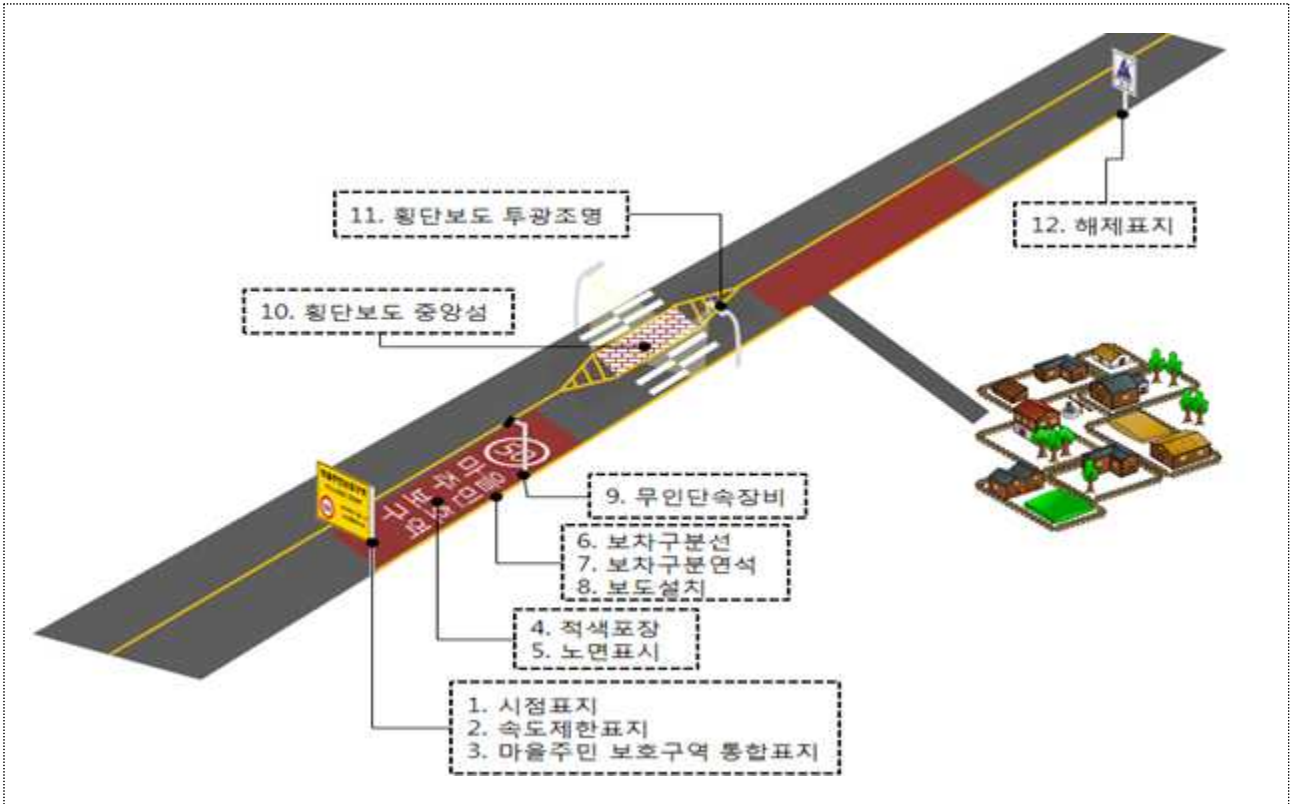
-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, 교통량, 보행량, 안전시설 설치 현황,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,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하였다.
- 향후,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~30km/h 낮추고, 교통단속장비,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,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,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”면서,
- “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「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마련(20.9월)한 만큼,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김정환 사무관(☎ 044-201-3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사업 개념도**

<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>



□ **사업 현황 및 계획**

- (추진현황) '15년~'18년 시범 사업 및 「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('19~'20)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, 총 246개 구간 357.0km 추진

<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현황 >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총계
구간수	14	20	30	30	90	62	246
구간 연장(km)	12.25	28.18	47.8	43.38	133.47	91.9	357.0

- (2단계 기본계획) '21~'23년 동안 75개 시·도에 180개 구간 설치 예정

< 마을주민 보호구간 연차별 설치계획 >

	소계	'21년	'22년	'23년
소계	180	60	60	60
서울청	14	10	3	1
대전청	48	15	17	16
익산청	45	10	17	18
부산청	35	11	7	17
원주청	38	14	16	8